

## 법인소유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여신집중에 미치는 영향: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을 중심으로

### The Actual Individual Owner's effect on Loan Concentration in Corporate-owned Savings Banks: Focusing on Controlled Savings Banks' Working Experience

하 성 수\*·김 학 건\*\*

Sungsoo Ha·Hakkon Kim

저축은행 특성상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은 법인이지만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소유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이 여신집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고는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상기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으며 최대주주유형과 여신집중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축은행의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이 법인인 경우 여신집중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저축은행일지라도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며 해당 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여신집중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우수한 위험관리능력을 가진 저축은행일수록 이상의 효과가 감소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결과는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여신편중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문 색인어:** 법인소유저축은행, 실질적 개인소유자, 피저축은행 근무경험, 여신집중도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30602, B050703, B051300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석·박사 통합과정(gk4420@chungbuk.ac.kr), 제1저자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부교수(kimhk0283@chungbuk.ac.kr), 교신저자

논문 투고일: 2019. 12. 20, 논문 최종 수정일: 2020. 5. 20, 논문 게재 확정일: 2020. 5. 15

## I. 서론

최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은 2019년 6월 말 기준 45개사로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저축은행 중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개인이며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sup>2)</sup> 이와 관련하여 송태원 (2010)은 모(母)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자회사인 계열저축은행에서 임원 등의 형태로 근무하며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이지만 그 법인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해당 저축은행에서 임직원 등의 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질적 개인소유자는 대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료 수집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외관상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이 여신집중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여신집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추가분석을 통해 외관상 최대주주를 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하여 최대주주유형과 여신집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우선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법인 여부는 여신집중도와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소유저축은행일지라도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고 해당 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여신집중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주주 유형과 여신집중도 관련 분석에 있어 최대주주유형을 외관상 형태만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위험관리능력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경우 상기의 효과가 감소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main.do>)의 대주주 유형별 주요 재무비율 추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매일경제(2013. 9. 26), “부산저축銀 회장 재상고심 징역 12년”에 관한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유형과 여신집중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며 특히 법인소유저축은행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이 대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특성상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은 법인이지만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송태원, 2010). 이에 본 연구는 법인소유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과 여신집중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이외에도 본고는 상기의 분석에 있어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법인 및 개인최대주주와 경영성과 및 이익조정 등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전선애·이민환 (2008)은 국내 저축은행의 1999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소유,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및 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 대비 영업경비비율과 대손충당금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배수현 (2017)은 2009년에서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저축은행 반기 자료를 사용하여 저축은행의 법인 소유 여부가 경영성과와 비용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최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수익률이 낮고 영업수익대비 영업비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철 (2018)은 저축은행 최대주주 법인 여부가 무수익여신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최대주주가 법인이면서 무수익여신의 비중이 높은 경우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저자는 법인최대주주가 다양한 정보와 인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현정·유순미·김현진 (2017)은 저축은행의 법인최대주주가 개인최대주주에 비해 우수한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

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이익조정행위를 감시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민혁 (2018)은 200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의 90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유형에 따른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최대주주가 법인인 저축은행에 비해 최대주주가 개인인 저축은행의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최대주주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규복·이수진 (2017)은 2015년 및 2016년의 2개년 저축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유구조가 대출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저축은행 개인소유 여부와 대출포트폴리오 분산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sup>3)</sup>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저축은행 최대주주유형을 단순히 외관상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법인소유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태원 (2010)은 국내 저축은행의 경우 계열화를 통해 모(母)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자회사인 계열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저축은행의 외관상 최대주주는 법인이지만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피저축은행의 대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소유저축은행의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대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진익 (2011)은 금융회사들이 순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조정삼·위지원 (2018)은 은행의 이익잉여금이 예측 불가능한 손실로부터 은행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저축은행의 이익잉여금 보유수준은 재무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보고는 상기의 가설검정에 있어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하고자 한다.

3) 한편 일반은행과 관련하여 Zulverdi et al. (2007), Den Haan et al. (2007)은 통화정책이 대출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III. 연구설계

#### 1. 표본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2008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반기별 저축은행 자료를 사용하여 법인이 최대주주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해당 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여신집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본고는 이러한 관계가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관상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개인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력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sup>4)</sup> 또한 저축은행의 재무 및 대출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근무경력 및 여신집중도, 재무자료 등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본고는 분석에 사용한 표본이 갖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고정효과모형을 일관되게 분석에 사용하였다.<sup>5)</sup> 또한 분석기간 동안의 연도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고정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에 존재 가능한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의 시점을  $t+1$ 반기로 한 식 (1)과 (2)를 연구모형으로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LC_{i,t+1} = & \beta_0 + \beta_1 SBWE_{i,t} + \beta_2 LOAN\_R_{i,t} + \beta_3 SIZE_{i,t} \\
 & + \beta_4 WDA\_R_{i,t} + \beta_5 LRE\_R_{i,t} + \beta_6 NIM\_R_{i,t} \\
 & + \beta_7 ADES_{i,t} + \beta_8 OE\_R_{i,t} + SBANK\_FE + YEAR\_FE + \epsilon_{i,t}
 \end{aligned} \tag{1}$$

$$\begin{aligned}
 LC_{i,t+1} = & \beta_0 + \beta_1 SBWE_{i,t} + \beta_2 SBWE_{i,t} \times RMC\_R_{i,t} + \beta_3 RMC\_R_{i,t} \\
 & + \beta_4 LOAN\_R_{i,t} + \beta_5 SIZE_{i,t} + \beta_6 WDA\_R_{i,t} + \beta_7 LRE\_R_{i,t} \\
 & + \beta_8 NIM\_R_{i,t} + \beta_9 ADES_{i,t} + \beta_{10} OE\_R_{i,t} \\
 & + SBANK\_FE + YEAR\_FE + \epsilon_{i,t}
 \end{aligned} \tag{2}$$

4) 동 자료는 개인식별정보가 모두 제거된 형태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5)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고자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활용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확률효과모형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모형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변수정의

저축은행재직더미(SBWE)는 저축은행의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은 법인이지만 그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가 개인이며 피저축은행 재직경험이 있는 경우 1,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 0로 설정하였다. <Table 1>에서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의 평균은 39.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외형상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해당 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sup>6)</sup> 최대주주유형더미(LSCD)는 저축은행의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이 법인인 경우 1, 개인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여신집중도(LC)는 저축은행의 대출편중정도를 의미하며 Tabak et al. (2011), 김학건·박광우·오승곤 (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학건 등 (2019)은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이용하여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총액에서 세부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공한 뒤 모두 합하여 저축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 집중도를 측정하였다. 본고 또한 이러한 계산방식을 토대로 여신집중도(LC)를 계산하였으며, 저축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세부 항목별 평균 대출비중은 <Figure 1>과 같다. 위험관리능력(RMC\_R)은 저축은행의 이익잉여금을 분자로, 고정이하여신 총액에서 해당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값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였다.

본고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대출비율(LOAN\_R), 기업규모(SIZE), 순이자마진비율(NIM\_R), 영업비용비율(OE\_R)은 최효순·오승곤 (2014), 배수현 (2018), 심명화 (2018)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대출비율(LOAN\_R)은 대출 총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비율이 큰 저축은행은 대출 부실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분산된 대출포트폴리오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규모(SIZE)는 저축은행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계산하였다.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대마블사(too big to fail)에 대한 믿음으로 대출의사결정 시 보다 위험추구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다(배수현, 2019). 순이자마진비율(NIM\_R)은 이자수익으로부터 이자비용을 차감한 값을 총자산의 평잔으로 나눈 값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여신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6) 한편 연도별 저축은행재직더미(SBWE) 평균값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8년 42%, 2012년 40.5%, 2016년 31.6%로 나타나 최근 8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 위해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영업비용비율(OE\_R)은 영업비용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영업비용이 높은 저축은행은 대출의사결정 시 대출 관리 및 감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중부실자산비율(WDA\_R), 유동성위험노출비율(LRE\_R), 자산부채만기구조(ADES)변수를 확보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중부실자산비율(WDA\_R)은 고정자산의 20%, 회수의문 자산의 75%, 추정손실자산의 100%를 모두 더한 뒤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대출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위험노출비율(LRE\_R)은 예수금과 차입금 등을 더한 값에서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등을 뺀 값을 분자로, 대출금에서 할인어음을 차감한 값을 분모로 하여 계산되었다.<sup>7)</sup> 유동성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은 대출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유동성 지표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1년 이내 만기도래부채로 나누어 측정한 자산부채 만기구조(ADES)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한편 본고는 이상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더미변수인 저축은행재직더미(SBWE), 최대주주유형더미(LSCD)를 제외한 모든 연속형 변수의 양 극단 1% 수준에서 조정(winsorize)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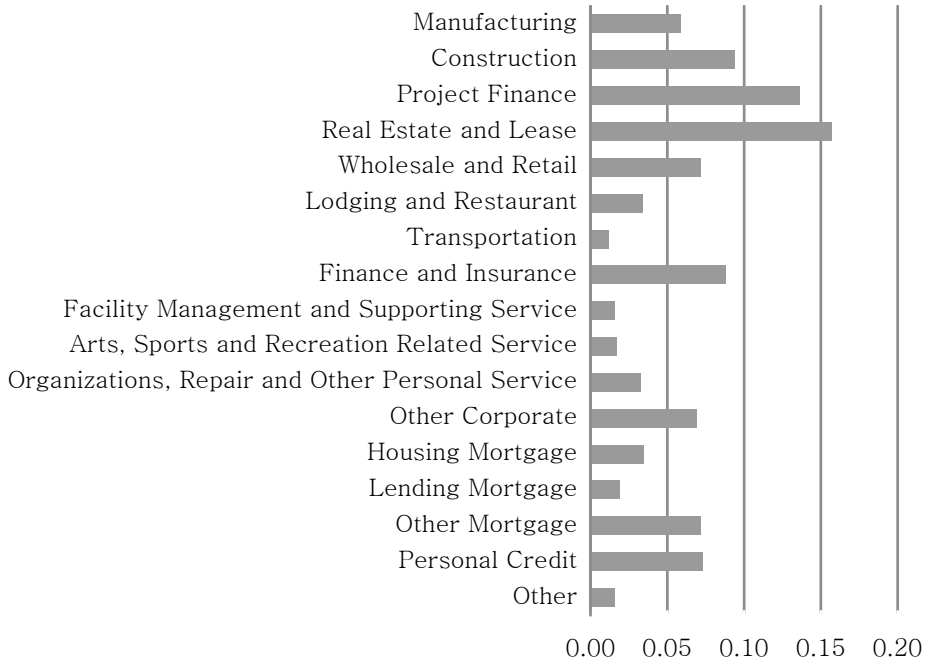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ean	P50	SD	P25	P75
LC <sub>t+1</sub>	348	0.167	0.136	0.088	0.117	0.166
SBWE <sub>t</sub>	348	0.397	0.000	0.490	0.000	1.000
LOAN_R <sub>t</sub>	348	0.709	0.754	0.186	0.649	0.825
SIZE <sub>t</sub>	348	12.915	12.997	1.175	12.114	13.896
WDA_R <sub>t</sub>	348	0.053	0.035	0.047	0.021	0.074
LRE_R <sub>t</sub>	348	0.886	0.880	0.381	0.832	0.940
NIM_R <sub>t</sub>	348	0.017	0.017	0.011	0.012	0.024
ADES <sub>t</sub>	348	1.058	1.003	0.451	0.857	1.192
OE_R <sub>t</sub>	348	0.048	0.043	0.022	0.033	0.056

7) 유동성위험노출비율(LRE\_R)의 정의는 ((예수금+차입금+표지어음예수금-지원자금차입금)-(현금+외국통화+할인어음+예치금+지준유가증권매도가능+지준유가증권단기매매+지준유가증권 만기보유-할인어음연체합계))/(대출금-할인어음)이다.

〈Figure 1〉 The Proportion of Loan Portfolio Category

This graph shows the proportion of savings banks' loan portfolio category during June 2008 to June 2016.



Sourc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IV. 실증분석

주요 가설검정에 앞서 〈Table 2〉에서는 최대주주를 법인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여신집중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이 법인인 경우 1, 개인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최대주주유형더미(LSCD)를 분석에 사용하였다.<sup>8)</sup>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모형에서 최대주주유형더미(LSCD)와 여신집중도(LC) 간에 음(-)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Table 3〉에서는 외관상 최대주주는 법인이지만 실질적 개인소유

8) 동 분석에서는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이 여신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최대주주유형이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를 모두 표본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분석에서는 법인 소유저축은행이지만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자가 존재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이 여신집중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통제변수 중 유동성 지표가 제외된 모형 (1)과 건전성, 수익성 지표가 제외된 모형 (2)에서 모두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의 회귀 계수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모든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한 모형 (3)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는 저축은행 최대주주유형과 여신집중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외관상 형태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영향력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2〉 The Effect of Largest Shareholder Type on Loan Concentration

This table 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st shareholder type and loan concentration. The abbreviations of variables are LC(loan concentration), LSCD(largest shareholder corporate dummy), LOAN\_R(loan ratio), SIZE(firm size), WDA\_R(weighted distressed assets ratio), LRE\_R(liquidity risk exposure ratio), NIM\_R(net interest margin ratio), ADES(assets debt expiration structure), OE\_R(operating expense ratio), SBANK\_FE(savings banks fixed effects), and YEAR\_FE(year fixed effects).

	LC <sub>t+1</sub>		
	(1)	(2)	(3)
LSCD <sub>t</sub>	-0.012** (-2.22)	-0.010* (-1.73)	-0.013** (-2.42)
LOAN_R <sub>t</sub>	-0.077*** (-4.76)	-0.052*** (-3.18)	-0.079*** (-4.77)
SIZE <sub>t</sub>	0.037*** (5.98)	0.038*** (6.41)	0.034*** (5.58)
WDA_R <sub>t</sub>	0.100** (2.20)		0.039 (0.81)
LRE_R <sub>t</sub>		-0.024*** (-4.24)	-0.019*** (-3.13)
NIM_R <sub>t</sub>	1.295*** (6.84)		1.177*** (6.11)
ADES <sub>t</sub>		-0.009* (-1.96)	-0.009* (-1.88)
OE_R <sub>t</sub>	0.230** (2.48)	0.330*** (3.76)	0.301*** (3.14)
Constant	Yes	Yes	Yes
SBank_FE	Yes	Yes	Yes
Year_FE	Yes	Yes	Yes

Observations	1,330	1,330	1,330
R-squared	0.156	0.137	0.164

Notes: 1) \*\*\*, \*\*, \* are 1, 5, 1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2) t-values appear in the brackets.

〈Table 3〉 The Effect of Actual Individual Owner’s Working Experience on Loan Concentration

This table 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individual owner’s working experience and loan concentration. The abbreviations of variables are LC(loan concentration), SBWE(savings banks working experience), LOAN\_R(loan ratio), SIZE(firm size), WDA\_R(weighted distressed assets ratio), LRE\_R(liquidity risk exposure ratio), NIM\_R(net interest margin ratio), ADES(assets debt expiration structure), OE\_R(operating expense ratio), SBANK\_FE(savings banks fixed effects), and YEAR\_FE(year fixed effects).

	LC <sub>t+1</sub>		
	(1)	(2)	(3)
SBWE <sub>t</sub>	0.070*** (2.64)	0.075*** (2.84)	0.073*** (2.72)
LOAN_R <sub>t</sub>	-0.079*** (-2.62)	-0.069** (-2.32)	-0.068** (-2.19)
SIZE <sub>t</sub>	0.007 (0.66)	0.000 (0.00)	0.003 (0.26)
WDA_R <sub>t</sub>	0.174** (2.50)		0.066 (0.76)
LRE_R <sub>t</sub>		-0.019*** (-3.19)	-0.016** (-2.12)
NIM_R <sub>t</sub>	0.191 (0.47)		0.007 (0.02)
ADES <sub>t</sub>		-0.001 (-0.18)	-0.001 (-0.16)
OE_R <sub>t</sub>	-0.071 (-0.49)	0.051 (0.34)	0.026 (0.17)
Constant	Yes	Yes	Yes
SBank_FE	Yes	Yes	Yes
Year_FE	Yes	Yes	Yes
Observations	348	348	348
R-squared	0.132	0.143	0.145

Notes: 1) \*\*\*, \*\*, \* are 1, 5, 1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2) t-values appear in the brackets.

〈Table 4〉는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와 여신집중도(LC) 사이의 관계에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와 위험관리능력(RMC\_R)변수의 교차변수(SBWE×RMC\_R)는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1) 및 (2) 그리고 (3)에서 저축은행재직더미(SBWE)는 〈Table 3〉과 일관되게 여신집중도(LC)와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와 여신집중도(LC)의 관계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위험관리능력(RMC\_R)의 경우 여신집중도(LC)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제적 위험관리 측면에서 이익잉여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여신집중도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보유한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 및 관리에 보다 특화된 분야로 대출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 결과로 보인다.

〈Table 4〉 The Effect of Actual Individual Owner’s Working Experience on Loan Concentration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Capability

This table presents the effects of actual individual owner’s working experience on loan concentration according to risk management capability. The abbreviations of variables are LC(loan concentration), SBWE(savings banks working experience), RMC\_R(risk management capability), LOAN\_R(loan ratio), SIZE(firm size), WDA\_R(weighted distressed assets ratio), LRE\_R(liquidity risk exposure ratio), NIM\_R(net interest margin ratio), ADES(assets debt expiration structure), OE\_R(operating expense ratio), SBANK\_FE(savings banks fixed effects), and YEAR\_FE(year fixed effects).

	LC <sub>t+1</sub>		
	(1)	(2)	(3)
SBWE <sub>t</sub>	0.066*** (2.61)	0.072*** (2.87)	0.070*** (2.77)
SBWE <sub>t</sub> ×RMC_R <sub>t</sub>	-0.024*** (-5.53)	-0.024*** (-5.68)	-0.025*** (-5.67)
RMC_R <sub>t</sub>	0.000 (1.57)	0.000 (1.61)	0.000 (1.58)
LOAN_R <sub>t</sub>	-0.067** (-2.29)	-0.058** (-2.03)	-0.051* (-1.73)

SIZE <sub>t</sub>	0.008 (0.80)	0.005 (0.50)	0.005 (0.45)
WDA_R <sub>t</sub>	0.124* (1.84)		0.006 (0.08)
LRE_R <sub>t</sub>		-0.017*** (-2.89)	-0.017** (-2.34)
NIM_R <sub>t</sub>	-0.148 (-0.37)		-0.308 (-0.76)
ADES <sub>t</sub>		0.004 (0.62)	0.003 (0.48)
OE_R <sub>t</sub>	-0.136 (-0.93)	-0.007 (-0.05)	-0.023 (-0.15)
Constant	Yes	Yes	Yes
SBank_FE	Yes	Yes	Yes
Year_FE	Yes	Yes	Yes
Observations	348	348	348
R-squared	0.217	0.232	0.234

Notes: 1) \*\*\*, \*\*, \* are 1, 5, 1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2) t-values appear in the brackets.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Table 5>에서는 대출편향(LB)을 여신집중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대출편향(LB)은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출항목이 해당 저축은행의 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Table 5>의 모든 모형에서 저축은행재직더미(SBWE)는 대출편향(LB)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졌으며, 모형 (2)에서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와 위험관리능력(RMC\_R)변수의 교차항(SBWE×RMC\_R)은 유의미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가졌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서 대출편향(LB)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도 본고의 주요 분석결과가 강건함을 보여준다.

<Table 5> Robust Test 1

This table presents the effects of actual individual owner's working experience on loan bias. The abbreviations of variables are LB(loan bias), SBWE(savings banks working experience), RMC\_R(risk management capability), LOAN\_R(loan ratio), SIZE(firm size), WDA\_R(weighted distressed assets ratio), LRE\_R(liquidity risk exposure ratio), NIM\_R(net interest margin ratio), ADES(assets debt expiration

structure), OE\_R(operating expense ratio), SBANK\_FE(savings banks fixed effects), and YEAR\_FE(year fixed effects).

	LB <sub>t+1</sub>	
	(1)	(2)
SBWE <sub>t</sub>	0.155*** (3.46)	0.152*** (3.50)
SBWE <sub>t</sub> × RMC <sub>t</sub>		-0.034*** (-4.62)
RMC <sub>t</sub>		0.001 (1.44)
LOAN <sub>t</sub>	-0.075 (-1.45)	-0.051 (-1.01)
SIZE <sub>t</sub>	-0.006 (-0.34)	-0.003 (-0.19)
WDA <sub>t</sub>	-0.037 (-0.25)	-0.121 (-0.86)
LRE <sub>t</sub>	-0.033** (-2.58)	-0.034*** (-2.76)
NIM <sub>t</sub>	-0.185 (-0.26)	-0.622 (-0.89)
ADES <sub>t</sub>	-0.005 (-0.48)	0.000 (0.02)
OE <sub>t</sub>	0.131 (0.51)	0.073 (0.28)
Constant	Yes	Yes
SBank_FE	Yes	Yes
YEAR_FE	Yes	Yes
Observations	348	348
R-squared	0.123	0.187

Notes: 1) \*\*\*, \*\*, \* are 1, 5, 1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2) t-values appear in the brackets.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반기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Table 6>에서는 세부 반기특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 연도 고정효과 대신 반기 고정효과를 사용한 강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와 여신집중도(LC)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 (1)의 경우 앞선 <Table 3>의 결과와 일관되게 저축은행재직더미(SBWE)는 유의미한 양(+)의 계수 값을 가졌다. 모형 (2)에서도 저축은행재직더미(SBWE)는 여신집중도(LC)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저축은행재직더미(SBWE)와 위험관리능력더미

(RMC)의 교차변수(SBWE×RMC)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가졌다. 이상의 결과는 연도고정효과 대신 반기고정효과를 사용한 후에도 본고의 결과가 <Table 4>와 일관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Table 6> Robust Test 2

This table presents the effects of actual individual owner's working experience on loan concentration using semi-annual fixed effects. The abbreviations of variables are LC(loan concentration), SBWE(savings banks working experience), RMC\_R(risk management capability), LOAN\_R(loan ratio), SIZE(firm size), WDA\_R(weighted distressed assets ratio), LRE\_R(liquidity risk exposure ratio), NIM\_R(net interest margin ratio), ADES(assets debt expiration structure), OE\_R(operating expense ratio), SBANK\_FE(savings banks fixed effects), and Semi\_Annual\_FE(Semi\_Annual fixed effects).

	LC <sub>t+1</sub>	
	(1)	(2)
SBWE <sub>t</sub>	0.071*** (2.63)	0.069*** (2.69)
SBWE <sub>t</sub> × RMC_R <sub>t</sub>		-0.024*** (-5.50)
RMC_R <sub>t</sub>		0.000 (1.53)
LOAN_R <sub>t</sub>	-0.070** (-2.21)	-0.055* (-1.82)
SIZE <sub>t</sub>	0.003 (0.24)	0.005 (0.47)
WDA_R <sub>t</sub>	0.073 (0.83)	0.014 (0.17)
LRE_R <sub>t</sub>	-0.015** (-2.04)	-0.016** (-2.24)
NIM_R <sub>t</sub>	-0.020 (-0.05)	-0.334 (-0.79)
ADES <sub>t</sub>	-0.001 (-0.10)	0.003 (0.50)
OE_R <sub>t</sub>	0.012 (0.08)	-0.034 (-0.22)
Constant	Yes	Yes
SBank_FE	Yes	Yes

Semi_Annual_FE	Yes	Yes
Observations	348	348
R-squared	0.157	0.242

Notes: 1) \*\*\*, \*\*, \* are 1, 5, 1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2) t-values appear in the brackets.

## V. 결론

본 연구는 법인소유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이 대출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는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근무경험과 여신집중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추가분석을 통해 저축은행의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이 여신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축은행의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을 법인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법인소유저축은행일수록 낮은 여신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저축은행일지라도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며 해당 개인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여신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최대주주유형과 여신집중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최대주주유형을 외관상 형태로만 구분하기 보다는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영향력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본고는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과 근무경험의 교차항이 유의한 음(-)의 값을 발견하였다. 이는 저축은행의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영향력과 여신집중도의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외관상 최대주주유형이 법인이지만 실질적 개인소유자가 존재하고 해당 소유자가 피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송태원, 2010).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저축은행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여신집중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영향력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고의 결과는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여신편중에 따른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저축은행 실질적 소유자의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다수가 비상장 형태인 저축은행 특성상 자료수집의 한계가 존재하여 대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여러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고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 개인소유자의 피저축은행 재직기간, 연령, 지분율 등 보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정·유순미·김현진 (2017),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상호저축은행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71권, 한국국제회계학회, pp. 151-178.
- (Translated in English) Kang, H., S., Yu, and H., Kim (2017).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Earnings Management: Focus on Mutual Savings Bank’s Ownership Structure”,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71:151-178.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Translated in English)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http://fisis.fss.or.kr>).
- 김민혁 (2018), “대손충당금전입 조정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 연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비교분석”, **재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재무관리학회, pp. 189-216.
- (Translated in English) Kim, M. (2018). “Discretionary Loan Loss Provisions and Stock Market Response: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mercial Banks and Savings Bank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5(3):189-216.
- 김학건·박광우·오승곤 (2019), “여신집중과 저축은행부실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재무학회, pp. 93-120.
- (Translated in English) Kim, H., K., Park, and S., Oh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an Portfolio Concentration and Bankruptcy in Savings Banks”,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32(1):93-120.
- 배수현 (2017), “저축은행 소유구조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경영교육학회, pp. 47-68.
- (Translated in English) Bae, S. (2017). “A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Ownership Struc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Savings Bank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3):47-68.

\_\_\_\_\_(2018), “저축은행 수익다각화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복합금융그룹 소속 저축은행의 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5권 제2호, 글로벌경영학회, pp. 77-96.

(Translated in English) Bae, S.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Diversification on Savings Bank Performance: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Performance of Savings Bank Belonging to Financial Conglomeration Group”,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15(2):77-96.

\_\_\_\_\_(2019), “저축은행 가계대출과 경영위험”, *세무회계연구*, 제62권, 한국세무회계학회, pp. 23-42.

(Translated in English) Bae, S. (2019). “The Effects of Household Loans on Management Risk in Savings Banks”, *Tax Accounting Research*, 62:23-42.

송태원 (2010), *저축은행의 계열화 현황 및 시사점*, 예금보험공사.

(Translated in English) Song, T. (2010). *The Current Status of Savings Banks Affiliation and Implications*,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심명화 (2018), “저축은행과 예금자 규율”, *재무관리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재무관리학회, pp. 83-120.

(Translated in English) Sim, M. (2018). “Depositor Discipline in Korean Savings Banks”,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5(1):83-120.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대주주유형별 주요재무비율추이*

(<http://www.kdic.or.kr/save/financial02.do>).

(Translated in English)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avings Banks' Major Financial Ratio Trends by Large Shareholder Type*

(<http://www.kdic.or.kr/save/financial02.do>).

이규복·이수진 (2017),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K., and S., Lee (2017). *Analysis and Implication of Loan Portfolios by Characteristics of Saving Banks in Korea after Recent Restructuring*, Korea Institute of Finance.

전선애·이민환 (2008),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보험연구원, pp. 229-261.

(Translated in English) Chun, S., and M., Lee (2008). “Ownership Structure·Governance, Firm Performance and Risk Taking of the Mutual Saving Banks in Korea”,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19(3):229-261.

정남철 (2018), “무수익여신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간의 관련성: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제33권 제6호, 한국경영교육학회, pp. 133-152.

(Translated in English) Jung, N.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 Performing Loans and Discretionary Loan Loss Allowance of Korean Savings Banks: Focusing on Ownership Structur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6):133-152.

조정삼·위지원 (2018), **은행산업 평가방법론**, 한국신용평가.

(Translated in English) Cho, J., and G., Wee (2018). *Banking Industry Rating Methodology*, Korea Investors Service.

진익 (2011),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및 시사점”, *KiRi Weekly*, 2011. 3. 21.

(Translated in English) Jin, I. (2011). “Comparison and Implication of Profit Structure between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Banks”, *KiRi Weekly*, 2011. 3. 21.

최효순·오승곤 (2014),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대출 군집행동”, **금융안정연구**, 제15권 제

2호, 예금보험공사, pp. 31-67.

(Translated in English) Choi, H., and S., Oh (2014). “Herding Behavior in Bank Lending: Evidence from Korean Savings Banks”, *Financial Stability Studies*, 15(2):31-67.

Den Haan, W., S., Sumner and G., Yamashiro (2007). “Bank Loan Portfolios and the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4(3):904-924.

Tabak, B., D., Fazio and D., Cajueiro (2011). “The Effects of Loan Portfolio Concentration on Brazilian Banks’ Return and Risk”,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5(11):3065-3076.

Zulverdi, D., I., Gunadi and B., Pramono (2007). “Bank Portfolio Model and Monetary Policy in Indonesia”, *Journal of Asian Economics*, 18(1):158-174.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individual owner's effect on loan concentration in corporate-owned savings banks in the case that the owner has working experiences in controlled savings banks. In addition to the owner's specific work experience, this paper also considers saving banks' risk management capability as an additional point in this causal relation. Besides, this study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 type and loan concentra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rporate-owned savings banks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loan concentration. However, this effect could be reversed if the corporate-owned savings banks' actual individual owner has working experience in the controlled savings bank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at the negative effects could be alleviated when savings banks have superior risk management capabi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may ne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actual individual owner.

※ **Key words:** Corporate-owned savings banks, Actual individual owner, Controlled savings banks' working experience, Loan concentration